

# 「關東別曲」에 나타난 松江의 自然觀

정 대 립

—차 례—

- I. 序  
II. 道와 自然  
III. 「關東別曲」에 나타난 松江의 自然觀  
IV. 結

## I. 序

松江 鄭澈은 타고난 문학적 소질과 세련된 문장력을 바탕으로 해서, 漢詩·時調·歌辭 등의 詩作을 통하여 우리의 文學史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文人이며, 또한 壬辰倭亂을 전후한 朝鮮中期의 어려운 시대에 처하여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특히 「關東別曲」은, 송강이 珍島郡守 李銖의 뇌물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귀향하였다가 45세 되던 정월에(1580년, 宣祖 13년) 江原道 관찰사에 임명받고 原州에 부임했는데, 그때 内外海 金剛과 關東八景을 유람하며 勝景과 자신의 감회를 스스로 自然 속에 몰입한 詩境과 詩想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洪萬宗은 「旬五志」에서 당시에 유행되던 우리의 詩歌 14곡에 대한 評語를 남기면서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關東別曲」은 송강 鄭澈이 關東山水의 아름다움을 두루 들어서 그 그윽하고 기괴한 경치를 다 말해냈다. 사물을 형상해낸 묘한 솜씨라든지, 말을 만드는 기발한 재주라든지 정말 樂曲中的 絶묘한 작품이다.<sup>1)</sup>

이와같이 洪萬宗을 위시한 많은 文人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기왕의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되어 왔다.<sup>2)</sup>

本稿는 「關東別曲」을 중심으로 해서, 道와 自然의 문제를 검토하고, 아울러 작품속에 담겨 있는 송강의 自然觀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道와 자연의 문제는 송강의 文學觀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될 것이다. 시가 자연의 모방임은 물론이려니와 동서고금을 통해서 시의 소재를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노래하지 않은 시는 찾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시는 자연의 이미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 이미지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련 양상 내지 인식 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의 자연, 즉 문학에 나타난 자연의 이미지를 찾기 위한 작업에서, 자연을 대하는 시인의 자연관이 근본적으로 시인 자신의 문학관에서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그것은 시인의 자

1) 전형대 外: 韓國古典詩學史(弘盛社, 1979) p. 434. 재인용.

2) 金炳國교수의 「假面 혹은 眞實—松江歌辭 關東別曲 評說」(국어교육 18~20 합병호 1972)과 金允植교수의 「政治와 文學—松江文學의 兩面性」(韓國文學史論攷, 法文社, 1973) 등의 논문이 있다.

연관이 그의 문학관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될 때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연관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송강을 위시한 당시의 양반관료 계층의 문학관의 주류를 이루었던 朱子學的 道德主義 문학관인 載道的 문학관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 자연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와 자연의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본다. 위로는 中國의 詩經의 전통에서부터 비롯하여 朝鮮後期の 韓國漢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서 儒·佛·道의 동양철학에서의 도와 자연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확연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本稿에서는 「關東別曲」을 중심으로 하여, 도와 자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보고자 하는 뜻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논의나마 전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와 자연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 Ⅱ. 道와 自然

송강의 「關東別曲」을 중심으로 도와 자연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강의 문학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송강이 직접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해 놓은 글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송강의 문학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송강이 문학활동을 전개했던 당시의 兩班士大夫 계층의 문학관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거나 송강의 문학작품 속에 담겨 있는 문학사상을 추출하여 그 양상을 파악하는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강이 문학활동을 전개했던 임진왜란을 전후한 朝鮮中期 시대는 朝鮮朝의 정치철학으로 자리를 굳힌 朱子學的 학풍이 고조되어가면서도, 한편으론 實學精神이 은연중 배태되어가는, 사대사조의 二元性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대이다. 이에 따라 문학관에 있어서도, 朱子學的 질서를 고수하고 유지하려는 사대부계층에서는 中國의 韓愈·朱子 계통의 載道的 문학관이 풍미하였고, 實學精神을 내세운 일부 文人들 사이에서는 문학의 자율성과 순수성에 몰입하고자 하는 脫載道的 문학관이 제고되고 있었다. 그러나 양반 사대부 계층이 문단을 주도했던 당시의 지배적인 문학관의 흐름은, 역시 <文以載道>의 정신 아래 時俗의 教化라는 공리성을 추구하는 載道的 문학관에 있었다고 생각된다.<sup>3</sup>

이로 보아 전형적인 양반 사대부의 신분으로 官僚社會에서 활동했던 송강의 문학관이 載道的 문학관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송강은,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내실 제 물건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도리가 있어 서 분시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으나, 다만 教化가 밝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아는 바가 없으면 비록 아름다운 재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제가 될 수 없다. (중략) 백성을 教化시켜 아

3) 전형대 外: 前揭書, pp. 227~244 참조.

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하는 것이 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개유하고 지도하며 권장하고 경계하는 것을 그만 둘 수는 없는 일이다.<sup>4)</sup>

라고 하여,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할 당시에 쓴 『洪州館板記』에서 〈化民成俗〉의 관료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밝혀주고 있다. 그런 한편 『訓民歌』 16수를 지어 〈化民成俗〉의 도리를 실행하였는바, 그것은 전형적인 載道文學의 모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송강의 시조와 가사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러한 정신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송강의 시조 중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교훈적 시조에 담겨져 있는 載道精神은, 〈化民成俗〉의 진정한 牧民官의 모습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서 현실의 匡正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강한 현실참여 욕구가 戀君의 정으로 탈바꿈하여 표현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사 작품에 나타나 있는 載道精神은 직접 노출되거나 직설적으로 표현되거나 하지 않고, 작품 전체에 용해되어 은밀히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숨겨져 있다. 그것은 聖恩에 감격하고 직무에 대한 기대감에 충만한 환희의 감정이 〈化民成俗〉하려는 牧民官으로서의 의욕과 의무감으로 바뀌면서, 강한 현실참여의 욕구가 그 가능성을 찾아 부단한 연군의 정으로 표출되면서, 또한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 지조 있는 선비의 길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굳게 다지면서 작품 속에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송강의 문학관을 載道的 문학관이라 규정해도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關東別曲』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담겨있는 載道精神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도와 자연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關東別曲』은, 鄉里에 묻혀 있다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고 나서, 聖恩에 감격하고 관찰사의 직무에 대한 기대감에 충만한 환희의 노래로 시작된다.<sup>5)</sup>

江湖에 病이 깊피 竹林의 누엇더니  
關東八百里에 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  
延秋門 드리드라 慶會南門 보라보며  
下直고 물너나니 玉節이 압피섯다.

이와 같이 성은에 감격하고 기대감에 충만한 이 환희의 물결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시종 밝고 희망찬 것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송강은 이 환희의 감정을 〈化民成俗〉하려는 牧民官으로서의 의욕과 의무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 孤臣去國에 白髮도 하도할사

4) 國譯 松江集 上, 三安出版社, 1974. p.152.

5) 金允植교수는 앞의 책에서 『關東別曲』을 환희의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다.

東州밤 계오새와 北寬亭의 올라흐니  
 三角山 第一峯이 흐마면 뇌리로다  
 弓王 大關터회 鳥雀이 지지괴니  
 千古興亡을 아는다 물으는다  
 淮陽 네일흠이 마초아 ㄱ톨시고  
 汲長孺 風彩를 고타아니 불거이고

〈孤臣去國〉한 뒤에도 보이지 않는 三角山, 왕이 계신 서울의 三角山을 못내 잊지 못하는 송강의 은근한 연군의 정은 〈흐마면 뇌리로다〉에서 더욱 돋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漢武帝 때 直諫을 잘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 〈臥治淮陽〉이라는 평을 들었던 淮陽太守 汲長孺의 故事를 들어, 스스로를 그의 風彩에 비기면서 善治에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것은 망국한 성운에 대한 보답이며, 牧民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關東別曲」이 官僚的 文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주된 모티브는 사회 公人으로서의 의무 및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왔던 것이다.<sup>6)</sup>

이렇게 보면 「關東別曲」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문학관은 바로 載道的 文學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면 그 載道的 정신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江陵大都護 風俗이 도홀시고  
 節孝旌門이 골골이 버리시니  
 比屋可封이 이제도 잇다홀다

風俗이 아름답고 節과 孝가 두루 실행되는 江陵, 漢書에서 堯舜 시절에는 태평성대라 이웃들이 모두 착했다고 한 데서 비롯된 故事인 〈比屋可封〉으로 하여 연상할 수 있는 태평성대의 江陵, 그것은 나라가 태평하고 성군이 선정을 베풀어 〈化民成俗〉이 이룩되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송강 자신의 의욕과 포부이기도 했으며, 載道的 정신의 표출이라고도 하겠다. 이렇게 「關東別曲」은 載道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忠·孝·節을 앞세우고 〈化民成俗〉의 이상을 담으면서, 國土大自然을 생동감 있게 찬미해나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關東別曲」에 나타난 自然은 載道精神에 의해 이끌린 自然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우선 송강이 關東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성운에 감격하고 직무에 대한 기대감에 충만한 환희의 감정으로 고조되어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仙鶴이 〈西湖 넷 主人을 반겨서 넘노는듯〉하고, 〈白鷗야 너디마라 네벗인줄 엇디아는〉이라 한 데서는 白鷗 역시 송강을 반겨 날고 있는 듯이 여겨지는 것이다. 山中을 두루 살핀 다음 東海로 나가는 마당에서는 〈玲瓏碧溪와 數聲啼鳥는 離別을 怨호는듯〉하여, 송강의 떠남을 아쉬워하는 시내와 새가 등장한다. 모두가 송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송강의 벽찬 환희의 감정에 맞추어 어울

6) 金炳國: 前揭論文, p. 15. 참조

려지고 있다. <어와 造化翁이 현스도 현스홀샤>와, <어와 너여이고 너ㄴ터니 쓰잇는가>에서 극찬하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송강 혼자서 즐기기는 아까운 생각에서 <일이 도흔 世界 넘대되 다뵈고져>라고 하여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까지도 충족하고 있어서, 송강의 고조된 감정의 상태를 넉넉히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와 보게되니 有情도 有情홀샤>라고 하여, 자연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 자연이 송강의 의도와 감정에 따라 반기고 원망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지로 송강은 자연을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에도 성공하고 있다.

○百川洞 거터두고 萬瀑洞 드러가니

銀ㄴ툼 무지게 玉ㄴ툼 龍의 초리

섯돌며 썸느소리 十里에 죽자시니

들을제논 우레러니 보니논 눈이로다

○늘거든 썬디마나 셋거든 솟디마나

芙蓉을 쇼갓논듯 白玉을 못갓논듯

東溟을 박츠논듯 北極을 괴왓논듯

눔홀시고 望高臺 외로올샤 穴望峯

살아 움직이는 자연, 용솟음치는 자연의 맥박을 생생히 전해주는 詩句들이다. 이렇게 생명있는 자연을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해낼 수 있는 힘은 곧 감격과 환희의 감정으로 고조된 송강의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가 감격과 환희의 감정으로 밝고 힘차게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이고 있다.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에서부터 비롯되는 王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마음이 그 하나이다. 때문에 <孤臣去國에 白髮도 하도할샤>에서와 같이 王의 곁을 떠난 송강은 외로울 수밖에 없으며, <三角山 第一峯이 흐마면 비리로다>와 <출하리 漢江의 木覓의 다히고져>에서 처럼 王의 곁에서 王을 모시고 있고 싶은 심정을 은근한 연군의 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군의 정이 직무에 대한 의무감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淮陽 네일흠이 마초아 ㄴ툼시키고/ 汲長孺 風彩를 고터아니 불겨이고>에서 汲長孺를 본받아 善治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술 가져다가 四海에 고로논화/ 億萬蒼生을 다 醉케 땡근후의>라 하여 왕명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牧民官의 자세에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야 한다는 의무를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王程이 有限하고 風景이 못술미니/ 幽懷도 하도할샤 客愁도 돌되업다>라고 한 데서 보다시피, 자연에 몰입하여 도취되기보다는, 王程의 有限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감을 일깨우고 있다. 그리하여 <江陵大都護 風俗이 도홀시키고/ 節孝旌門이 골골이 버러시니/ 比屋可封이 이제도 잇다홀다>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善治의 결과로 風俗이 아름다운 江陵으로 이끌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면 「關東別曲」에서의 자연은 송강의 문학관에서 보이는 載道精神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載道의 목적을 위해 주관적으로 관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關東別曲」을 중심으로 도와 자연의 문제를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범위를 넓혀 국문학에 나타난 도와 자연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연구의 가능성을 나름대로 검토하기 위해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국문학에 나타난 자연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학계에 제기된 것은 陶南 趙潤濟박사가 그의 「韓國文學史」와 「國文學概說」을 통해 朝鮮朝 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의 형성·양상을 <江湖歌道>라고 하면서, 江湖歌道는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에서 형성되었으며, 江湖歌道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은 一般美라고 규정하면서부터이다.<sup>7)</sup>

崔珍源교수는 이를 계승·발전시켜 一般美를 美的 이념으로 보고, 그 美的 내용을 調和와 永遠과 絶로絶로라고 파악한 바 있다.<sup>8)</sup>

이에 따르면 江湖歌道의 形成은 國文學에서의 자연미의 발견이라는 큰 공적을 남겨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江湖歌道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도와 자연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江湖歌道의 형성을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에서 찾는 데서 알아볼 수 있다.

우선 <黨爭>과 <致仕客>이라는 말이 朝鮮朝 양반관료 계층에나 해당되는 말이라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양반관료 사회의 유교적 정치철학에 따른 用舍行藏의 이념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明哲保身>과 <閑適>의 생활태도에서 우러난 자연미의 발견이라는 것은, 그것이 道와 자연의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 양반관료들의 문학을 대하는 주된 정신이 <文以載道>의 문학관이었음을 생각해볼 때, 그러한 문학관을 지닌 그들이 <明哲保身>과 <閑適>에서 형성해낸 江湖歌道의 자연이라는 것이 <文以載道>의 道의 개념을 도의시하고 형성된 자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은 그러한 문제를 분명히 일깨워주는 글이다.

江湖歌道는 결코 人生詩일지언정 自然詩는 못된다는 命題가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앞서 보아온 바에 의하면 그들의 노래의 대상인 자연은 결코 客觀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觀念이 형성한 자연이기 때문이다.<sup>9)</sup>

이와같이 江湖歌道를 自然詩 아닌 人生詩로 보고, 그 자연을 <觀念이 형성한 자연>으로 파악한 것은 <자연은 노래하면서도 오히려 似而非 自然詩><sup>10)</sup>를 읊은 그들의 실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자연을 아름답게 즐겨서 노래한 時調詩人인 孤山 尹善道の 「五友歌」에 나타난 자연에서 추

7) 趙潤濟: 韓國文學史, (東國文化社, 1963) pp. 130~141.

: 國文學概說, (東國文化社, 1955) p. 400~415. 참조

8)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成大出版部, 1977) pp. 4~7. 참조

9) 鄭炳昱: 꽃과 時調(國文學散叢, 新丘文化社, 1959) p. 188.

10) 上揭書, p. 189.

상된 관념을 유가의 윤리라고 규정한 윤성근님의 견해에서도 그러한 문제는 찾아볼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이 道와 自然의 문제는, 앞으로 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 Ⅲ. 「關東別曲」에 나타난 松江의 自然觀

앞장에서 「關東別曲」을 중심으로 道와 自然의 문제를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松江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 즉 자연을 어떻게 파악하여 작품 속에 형상화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詩的 소재로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정신, 또는 시인과 자연과의 거리 등을 종합해서 시에 나타난 자연관을 살피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觀照와 同化와 交感과 對立이 그것이다.

觀照란 자연을 주관적 요소를 가하지 않고 냉정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玩味하여 그 아름다움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경적으로 묘사한 것을 말하며, 자연에의 同化는 자연의 오묘한 진리를 마음으로 체득하여 자연 속에서 優遊自適하며 자연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끝내는 자연과 일체가 되어버린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자연과의 交感이란 시인과 자연이 서로 접촉되어 감응함을 뜻하는 것인데, 주로 시인의 감정이 자연에 옮겨져서 표출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인과 자연이 對立된 상태란 것은, 觀照나 同化나 交感의 경우와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자연의 생명력이나 오묘한 진리를 체득하여 형상화시키고 있으면서도, 끝내 그 자연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시인의 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신이 목적하는 바인 정치나 사회, 종교, 윤리 등의 현실적 요소에 집착하여, 자연의 세계에 안주하지 못하고 자연과 대립하거나 오히려 도피하게 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위의 네 가지 양상을 漢詩나 古典詩學的 자료들을 통하여 그 뜻을 보다 확연히 하면 다음과 같다.

논같이 끝난 푸른 산에 석양이 비껴 있고  
꽃에 홀린 저 농부 돌아갈 줄 모르는데  
한 마을 스물 넷의 누른 송아지  
들판 봄풀 위에 접점이 높고 있네.<sup>12)</sup>

申緯의 「尋花」中 第五首인 이 시는 아름답고 평화롭기만한 전원의 풍경을 서경적으로 묘사한 牧歌라 할 만하다. 시인의 주관적 감정은 전혀 배제되어 있으며 자연은 순수한 미적 관조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다음의 漢詩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

11) 윤성근: 尹善道の 自然觀(문화비평, v. 2, 3, 4호, 1970, 秋多호) 참조.

12) 畊罷夕陽生翠巒 迷花○笠不知還 一村二十四黃犢 散點平原春草間(申緯: 尋花 中 第五首)

草幕을 치고 人家 근방에 살아도  
 車馬의 시끄러움을 모른다네  
 그대에게 묻노니 어째서 그리한가  
 마음이 俗世를 멀어지던 사는 곳이 곧 외진 곳일세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노라니  
 유연히 南山이 눈에 비쳐오고  
 山氣는 아침저녁으로 아름답운데  
 나는 새는 서로 더불어 날아드네  
 이 속에 자연의 참뜻 있으니  
 말하고자 해도 할 말을 잊었노라.<sup>13)</sup>

陶淵明의 이 詩는 자연에 동화된 경지의 시라고 할 수 있다. 優遊自適의 즐거움과, 자연의 풍경 속에서 맛볼 수 있는 眞意를 悟得한 데 대한 감격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자연의 오묘한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은 경지로서 자연에 동화된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悠然見南山〉의 句에서 安閒하고 自若한 상태를 일러주는 〈悠然〉은 물론이려니와 보는 줄도 모르게 눈에 비쳐 들어오는 〈見〉의 의미는 그것이 곧 자연에 동화된 경지를 일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蘇東坡가 한 마디의 말만 고치면 이 詩의 神氣가 索然해진다고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거니와, 「文選」에서 〈見〉을 〈望〉으로 고쳐 의식적으로 南山을 바라보게 만든 것을 후세의 비평가들이 혹평한 것도, 자연에 동화된 陶淵明의 높은 시적 안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朝鮮朝의 漢詩에서도 이러한 경지의 시는 찾을 수 있는데, 다음의 詩가 그 하나이다.

흰 구름 속에 묻힌 절  
 스님도 흰구름 쓸어내지 못하네  
 손이 와서야 비로소 문 열어보니  
 온 산에 송화꽃 만발하였네.<sup>14)</sup>

朝鮮中期 三唐詩人中 제일인자로 손꼽히는 李達의 이 시에서도 自然에 동화된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손이 찾아와서야 비로소 문을 연 스님의 눈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눈에 들어오며 펼쳐진 송화꽃 만발한 산의 모습은 곧 陶淵明의 〈悠然見南山〉의 경지에 접근한 시경이라 할 만하다.

시인과 자연이 交感하는 상태는 다음의 인용으로 일찍부터 우리의 시인들 사이에서 주목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시가의 오묘한 경지는 山水 自然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가와 자연은 서로 值遇하

13)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向能爾 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間有眞意 欲辯已忘言(陶淵明：雜詩)

14) 寺在白雲中 白雲僧不掃 客來門始開 萬壑松花老(李達：山寺)

고 접촉되어 精氣를 注入하게 된다.<sup>15)</sup>

시인의 정기를 자연에 주입하여 얻어낸 시의 경지, 이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자연의 생명을 파악하고 그 정신을 구체화함으로써 얻어지는 詩의 생명의 창조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古人の 詩는 눈앞의 경치를 묘사하면서도 뜻이 言外에 있다. 말은 다할 수 있었으나 의미는 다하지 않았다.<sup>16)</sup>

에서, 李齊賢이 말한 <言外意>의 경지 또한 자연을 읊되 그 모습만 객관적으로 읊는 것이 아니고, 함축된 의미를 지닌 자연 곧 시인의 정기가 주입되어 생명력을 얻은 자연을 노래하는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얻어지는 시가 곧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자연의 생명을 함축된 의미로 표현한 시가 되는 것이다.

시인과 자연이 대립된 상태에서는 시인이 자연에 안주하지 못한다. 시인은 또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 그것은 정치, 사회, 철학, 종교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로서, 시인의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자연에 대한 안목이 객관적인 자연의 모습에서는 멀어지기 쉽다.

丁若鏞의 다음과 같은 시들은, 시인과 자연의 대립관계를 말해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새로이 호박순 두 잎 나더니

밤 사이에 넝쿨이 담장에 닿아 있네

수박일랑 평생에 심지 말지니

아전놈들 트집을 뉘라서 당해낼까.<sup>17)</sup>

○황송아지 외밭에 들어갈세라

서쪽들에 옮겨서 매어뒀더니

새벽녘에 이장이 코뻐어갔는데

동래하남 배 와서 짐 싣고 있네.<sup>18)</sup>

위의 시들에서 보이는 자연은 茶山의 現實觀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자연과는 거리가 멀다. 茶山이 파악하고 있는 자연의 참모습은 생산을 통해서 인간과 기본적으로 맺어져 있는 자연의 그것이다. 인간이 터를 잡고 생활하는 자연,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끝없이 대립·투쟁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자연,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인간활동에 의해서 부단히 개변되는 자연의 모습인 것이다.

15) 詩歌之妙 與山水相通 故二者相值 而精氣互注焉(金昌協: 農岩集, 卷21, 諭命岳李夢相二生東游詩序)

16) 古人之詩 目前寫景, 意在言外 詞盡而味不盡(李齊賢: 櫟翁稗說, 後集一)

17) 新吐南瓜兩葉肥 夜來抽蔓絡柴扉 平生不種西瓜子 剛怕官奴惹是非(丁若鏞: 長鬚農歌)

18) 不教糞積入瓜田 移繫西庭儼磚邊 里正曉來穿鼻去 東萊下納始裝船(上同)

이상에서 漢詩와 古典詩學의 자료들을 통해서, 觀照, 同化, 交感, 對立의 네 가지 자연관에 대한 이해를 넓혔거니와, 이제 그들을 기준으로 해서 「關東別曲」에 나타나 있는 송강의 자연관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송강은 關東의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관조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고 있다.

○百川洞 겨터두고 萬瀑洞 드러가니  
 銀ㄷ툰 무지게 玉ㄷ툰 龍의 초리  
 섯돌며 씬는 소리 十里에 ㄷ자시니  
 들을제눈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닐거든 쉼디마나 섯거든 솟디마나  
 芙蓉을 ㅅ갓논듯 白玉을 ㅅ갓논듯  
 東溟을 ㅅ갓논듯 北極을 ㅅ갓논듯  
 높홀시고 望高臺 외로올샤 穴望峯

○開化臺 고터올나 衆香城 바라보며  
 萬二千峯을 歷歷히 헤여히니  
 峯마다 ㅅ쳐잇고 ㄷ마다 ㅅ린 ㅅ운  
 ㅅ거든 ㅅ치마나 ㅅ커든 ㅅ지마나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자연을 적절한 비유와 세련된 시어로 마치 살아서 호흡하는 자연인 양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러한 관조의 태도는 전편에 걸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자연에 동화된 경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江湖에 病이 ㅅ피 竹林의 누엇터니〉에서 보이는 泉石膏肓의 분위기는 同化의 경지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곧바로 〈關東八百 里에 方面을 ㅅ디시니/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히다〉로 이어져, 江湖에서 미련없이 떨치고 일어나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서곡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仙槎를 ㅅ워내여 斗牛로 向히살가  
 仙人을 ㅅ즈러 丹穴의 머ㅅ살가

위의 詩句에서도 자연에 동화되고픈 마음은 표현되었다고 하겠으나, 그것 역시〈有限한 王程〉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생활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서, 잠시 눈길을 돌려 낭만과 감상에 마냥 젖어보는 시인의 상상력의 소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꿈 속에서 신선을 만나 술을 나누며 즐기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 것이다.

○松根을 베어누어 꽃조를 얼끗드니  
 꿈에 혼사름이 날드려 닐온말이  
 그덕을 내모르랴 上界에 眞仙이라  
 黃庭經 一字를 었디 그릇 날겨두고  
 人間의 내려와서 우리를 쏘오는다  
 저근덧 가디마오 이술혼잔 먹어보오

○말디자 鶴을 타고 九空의 올라가니  
 空中 玉簫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꿈에나마 신선이 되어 신선과 만나 술을 나누고 玉簫소리가 대표하는 풍류에 젖어보는 송강의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朝鮮朝의 양반관료 계층에 나타나는 낭만의 세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同化된 자연의 세계를 시적으로 형상화해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송강을 비롯한 朝鮮朝 양반관료들의 상투어인 江湖에 대한 동경이나 歸去來의 표방은, 오늘날의 도시인들이 떠난 고향을 그리면서도 실지로는 고향을 찾아 生活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그리한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일 뿐이지, 同化되어 자연 속에 몰입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經國濟世의 王道政治였으며, 자연은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터전이었다. 따라서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자연의 생명을 함축적 의미로 표현해내고자 하는 송강의 또 다른 자연관은 다음의 詩句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金剛臺 된우屨의 仙鶴이 샅기치니  
 春風王笛聲의 첫즈음 썩듯던디  
 縞衣玄裳이 半空의 소소쓰디  
 西湖 넛主人을 반겨서 넘노는듯

○天地 삼기실제 自然이 되연마는  
 이제와 보게되니 有情도 有情홀샤

○山中을 티양보랴 東海로 가자스라  
 籃輿緩步하야 山暎樓의 올라하니  
 玲瓏碧溪와 數聲啼鳥는 離別을 怨하는듯

○바다홀 것티두고 海棠花로 드러가니  
 白鷗야 누디마라 네벗인줄 었디아는

○갯둑 怒혼 고래 뉘라서 놀내관대  
불거니 썰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송강은 관동의 자연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러한 자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 그리하여 <有情>한 자연은, 仙鶴이나 白鷗가 되어 송강을 반기기도 하고, 碧溪와 啼鳥가 되어 자신과의 이별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성난 고래가 되어 험한 파도를 헤쳐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송강의 자연과의 교감은 단순한 자연에의 感情移入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생명있는 자연, 精氣를 서로 주고 받는 자연의 정신을 구체화해서 시적으로 다듬어 표현해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나도 줌을씨여 바다홀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알리  
明月이 千山萬落의 아니 비췌던 업다

눈앞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것만이 송강의 관조의 대상이고 또한 교감의 영역에 포함된다. <기피>와 <가>를 모르는 자연, 내면에 숨겨져 숨쉬고 있는 자연의 생명, 자연의 참모습은 <모르거니>이고, <엇디알리>일 뿐이다.

이로 보면 송강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의 신비와 생명을 포착하여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송강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입의 상태에 머무르고 만 것이다.

끝으로 松江의 자연관의 양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대립의 양상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道와 自然의 문제도 바로 이 대립의 양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江湖에 病이 깊피 竹林에 누엇더니  
關東八百里에 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

○昭陽江 々린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孤臣去國에 白髮도 하도할샤

○東州밤 계오새와 北寬亭의 올라흐니  
三角山 第一峯이 흐마면 비리로다

○太白山 그림채를 東海로 다마가니  
출하리 漢江의 木覓의 다히고저

王程이 有限하고 風景이 못슬의니  
幽懷도 하도할샤 客愁도 들되업다

위의 詩句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관찰사의 직을 맡긴 성은에 감격하여, 관동의 자연을 즐기면서도 성은에 보답하고자 하는 충성된 신하로서의 왕을 연연히 그리워하는 정은 셈솟듯한다. 때문에 관동의 아름다운 자연을 눈앞에 보면서도, 마음은 멀리 왕이 계신 서울 땅의 三角山 第一峯과 漢江의 木覓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성은에 감격하는 마음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찰사의 직무에 대한 기대감과 善治하고자 하는 의무감으로 바뀌어 작품 곳곳에서 노래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송강은 결코 자연에 안주할 수 있는 시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연을 벗어나서 현실에 집착한다. 자연은 현실에서 버림을 받아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머물 수밖에 없는 임시터전 이었던 것이다. 자연과 현실의 긴장과 대립 속에서 송강은 현실을 택하고 만 것이다. 송강의 자연과의 대립 양상은 그가 현실을 택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지어졌다고 하겠다.

#### IV. 結

이상에서 「關東別曲」에 나타난 松江의 自然觀을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그 대강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松江의 여러 문장과 시조, 가사 등을 통하여 살펴본 그의 문학관은, 朝鮮中期 양반 사대부 계층의 주된 문학관이었던 載道的 문학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關東別曲」에서의 자연은 載道的 道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결국 「關東別曲」은, <文以載道>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忠·孝·節의 윤리의식과 <化民成俗>의 이상을 담으면서, 국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생동감있게 찬미해나간 작품이라 생각된다.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도, 載道的 목적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관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道와 自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中國의 詩經의 전통에서부터 비롯하여 朝鮮朝의 漢詩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儒·佛·道의 동양철학에서의 道와 自然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 것이라고 본다.

「關東別曲」에 나타난 송강의 자연관을 살피기 위해, 시인의 시정신이나 자연과의 거리 등을 종합해서, 자연관의 양상을 觀照와 同化와 交感과 對立의 넷으로 나누었다.

송강은 객관적인 자연을 적절한 비유와 세련된 시어로 마치 살아서 호흡하는 자연인 양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觀照의 양상은 전편에 걸쳐 나타나 있다.

江湖를 동경하는 病으로 송강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연에 同化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작품속에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泉石膏肓의 분위기를 빚어내는 데 멈추고 말았다.

송강은 자연과의 交感을 통하여 자연의 신비와 생명을 포착하여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송강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입의 상태에 머무르고 만 것이다.

송강은 또한 결코 자연에 안주할 수 있는 시인은 아니었다. 자연과 현실의 긴장과 대립 속에서 그는 현실을 택하였던 것이다. 송강의 자연과의 대립 양상은 그가 현실적 載道의 구현을 택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지어졌다.

송강의 자연관의 양상은, 同化의 경지보다는, 觀照나 交感, 그리고 對立의 양상이 보다 크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對立의 양상은, 송강의 載道的 문학관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때, 송강의 자연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송강의 時調·歌辭·漢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강의 자연관의 양상을 추출해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SONG-GANG (松江)'s NATURE-VIEW  
 REVEALED IN 'KWAN-DONG-BYUL-GOK  
 (「關東別曲」)

CHUNG DAE LIM

Song-gang's view on literature was one of doctrines-supremacy (載道) that had been prevailing among the gentry.

'Kwan-dong-byul-gok', based on the idea that a composition contains doctrines (文以載道), manifests the moral senses of loyalty, filial piety, and fidelity, and proclaims the ideal that manners and customs of people would be purified by politics and education (化民成俗). Though the beauty of the country is glorified, it is subjectively idealized for doctrines-supremacy.

By studying and synthesizing his poetical spirit and its relationship with nature, I classified the features of nature-view as follows: contemplation, assimilation, sympathy, conflict.

Song-gang expressed the nature as vivid as living and breathing by the appropriate metaphors and elaborate dictions, which is the feature of contemplation that is revealed throughout.

It is with the intention to assimilate with nature that Song-gang writes the contemplation. But the intention is not concretized, but the mood of longing for nature is aroused. He could not express figuratively the mystery and life of nature by sympathy, but remain in the domain of empathy. And he couldn't lead a peaceful living in a natural world. In conflicting between nature and life, he chose the latter. So his feature of conflict resulted in choosing the realization of doctrines in life.

So Song-gang's nature-view is characterized not as a assimilation. but as a contemplation, a sympathy and a conflict. Especially the feature of conflict is essential in relation with his literature-view.